

밤을 걷다 보면 도시의 조도가 사진을 결정한다. 대구와 경북은 낮보다 밤이 힘을 쓰는 장면이 많다. 오래된 시장 간판이 번쩍이고, 강가에 라이트가 닿아 잔물결이 살아난다. 역사적 건물은 빛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공단의 증기와 빨간 경고등은 SF처럼 보인다. 한 장면을 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보와 감각, 그리고 약간의 준비다. 이 글은 대구와 경북에서 밤에 사진을 찍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가서 셔터를 누르기 좋은 자리들을 지도처럼 풀어낸다. 위치, 빛의 성격, 가는 길, 장비 선택과 안전, 실패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촘촘히 담았다.

대구 도심의 빛결, 네온과 유리 그리고 사람

동성로는 대구의 야간 사진 교과서 같은 곳이다. 관광객은 많고 간판은 촘촘하다. 인파 사이에서 인물 실루엣을 잡아내거나 젖은 노면에 반사된 네온을 프레임의 절반으로 쓰는 방식이 잘 맞는다. 비가 온 날, 특히 소나기 직후가 좋다. 바닥 반사가 살아나고, 차가우면서도 짙은 채도의 색띠가 만들어진다. 삼각대는 사람들 동선에 방해가 되어 쓰기 어렵다. 대신 35mm나 50mm 단렌즈에 조리개를 열고, ISO 1600에서 3200 정도로 올리는 편이 낫다. 스냅이라면 셔터속도를 1/160 이상으로, 장면을 눌러 담고 싶으면 1/60 근방에서 흔들림 없는 타협점을 찾는다.

반월당 네거리와 현대백화점 주변은 유리와 금속이 많아 반사가 과감하게 들어온다. 교차로 중앙 대기 공간은 안전요원이 자주 지나는 구간이라 무리한 진입은 좋지 않다. 횡단보도 대기선에서 광각으로 올라오는 버스 헤드라이트를 받아내면 루프 라이트가 자연스레 리딩라인 역할을 한다. 신호 주기가 90초 내외라 리듬이 단조롭지 않다. 신호등 컬러를 프레임에 남기고 싶다면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 0.3에서 0.7 사이로 낮춰 하이라이트 클리핑을 막으면 좋다.

수성못은 도시형 야간 풍경 중 가장 편안한 편이다. 호수 가장자리에 조성이 잘 되어 있어, 전경에 난간이나 데크를 넣고 멀리 수성스퀘어의 빛을 찍어도 좋다. 무풍일에는 거울 같은 반사가, 바람이 불면 수목화 같은 텍스처가 나온다. 포인트를 옮기며 24-70mm 줌으로 대응하면 편하고, 장노출을 할 계획이라면 삼각대와 ND8 정도를 챙긴다. 분수 가동 시간대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므로, 봄과 여름에는 오후 8시 이후에도 분수 연출이 이어지는 날이 많다. 분수의 RGB 조명은 색이 빠르게 변하므로 셔터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면 색이 섞여 탁해진다. 1/30에서 1/60 사이면 색층이 또렷하게 남는다.

앞산 전망대는 대구 야경의 상징처럼 취급되지만, 계절과 공기질의 변덕을 타는 곳이다. 마른 계절, 북서풍이 불어 미세먼지가 적은 날엔 하늘까지 양감이 생기는데, 반대로 봄철 황사나 여름철 습도가 높으면 뿌연 회색 막이 도시를 덮는다. 전망대와 케이블카 상부역 사이의 데크는 흔들림이 심할 때가 있어 장노출에는 불리하다. 고정된 난간보다 안쪽에 삼각대를 두고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한다. 70-200mm 망원으로 특정 아파트 단지의 패턴이나 고가도로의 곡선을 뽑아내면, 넓게만 담는 사진보다 이야기성이 생긴다.

서문시장 야시장은 인물과 음식, 스팀과 연기가 만드는 움직임이 핵심이다. 수증기가 라이트를 만나면 빛을 시각화한다. 흰색 LED 아래에서 김이 흘러나오는 포인트를 찾고, 측광을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가져가면 사람의 얼굴은 그림자에 머물고 빛의 길만 살아난다. 상인과 눈을 맞추고 허락을 받으면 표정이 달라진다. 복잡한 배경을 정리하려면 F1.8에서 F2.8 사이의 얇은 심도를 쓰되, 사진이 너무 얇아지지 않게 피사계 심도 거리를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1미터 거리에서 35mm, F2.0이면 얼굴과 손이 함께 날아가지 않는 범위가 나온다.

강과 다리, 물빛을 이용하는 법

금호강과 신천은 대구의 야간 색을 길게 끌어준다. 수변 데크와 자전거길이 잘 이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고, 야간에도 조명이 있어 위험이 크지 않다. 다리마다 색과 패턴이 달라서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범어대교는 라이트가 규칙적이고, 신천교는 보행자 조명과 자동차 흐름이 겹친다. 강수량이 적은 날은 수면이 낮아져 반사가 잘 깨진다. 이럴 때는 물가까지 내려가지 말고 조금 높은 위치에서 프레임을 구성해 수면의 어두운 면을 하단 마스크로 쓰는 편이 안정적이다. 장노출로 자동차 라이트 궤적까지 한 번에 담을 계획이라면 15초에서 30초 사이가 기본이다. 겨울철은 공기가 맑지만 손이 금방 굳는다. 릴리즈와 얇은 라이너 장갑을 챙겨, 두꺼운 장갑을 벗지 않고도 버튼을 다룰 수 있게 준비한다.

수문 주변은 하이라이트가 폭발하기 쉬운 구간이다. 특히 LED 스팟이 직격하는 곳은 원형 번짐이 생긴다. 조리개를 F8 이상으로 조이면 조명 스타가 생기는데, 너무 과하면 도시 전체가 단단해 보이는 대신 거칠어진다. 노출을 두 장으로 나눠 하이라이트와 새도를 각각 잡아두고 후반에서 합치면 현장에서 타협을 덜 해도 된다. 다만 바

탐이 붙어 수면 패턴이 바뀌는 날엔 브래키팅 합성에서 가장자리 흔들림이 도드라지므로, 합성에 자신이 없다면 현장 노출을 조금 낮춰 하이라이트를 살리는 쪽이 안전하다.

경산 권역으로 내려가면 영남대 캠퍼스 호수도 야간 포토존으로 손색이 없다. 학생 행사가 있는 날이면 다리와 데크 조명을 강화하는데, 인파가 장식이 된다. 다만 보안 규정상 늦은 밤 장비가 큰 촬영은 제한될 수 있으니 안내 팻말을 확인하고 조용히 움직인다. 건물 외벽의 벽돌과 창 프레임이 규칙적인 그리드를 만들어 독특한 배경이 된다. 85mm로 인물을 당겨 라이트 보케를 크게 살리면 SNS에서 흔히 보는 연말 분위기의 초상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산업의 밤, 공단과 철길의 표정

성서산업단지는 낮에 보면 단조롭지만, 밤에는 터널식 조명, 증기 배출, 트럭 출입등이 합쳐져 상상 이상의 장면을 만든다. 다만 보안 민감도가 높아 사유지와 촬영 금지 구역이 많다. 담장 밖에서 공공도로 영역에서만 촬영하고, 삼각대를 차도 가장 끝선에서 쓰지 말 것. 배기구에서 나오는 증기는 거울에 더 드라마틱하다. 노란색 나트륨등이 아직 남아 있는 블록에서는 색온도가 낮아 초록이 섞인다. 자동 화이트밸런스에 맡기면 프레임마다 들쭉날쭉해지니 켈빈 3000에서 3600 사이로 고정하고 RAW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장노출을 하면 증기가 실크처럼 퍼지는데, 2초에서 4초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형태가 사라져 버린다.

대구선 폐선 구간과 동춘역 인근 철길은 스토리성 있는 사진을 건지기 좋은 곳이지만, 선로 접근은 늘 위험이 동반된다. 폐선이든 현행선이든 철길 위 보행은 피해야 한다. 안전한 위치에서 평행 라인을 살려 도시 불빛을 심플한 배경으로 쓰면 된다. 신호등과 선로 변 전선주가 반복되며 리듬감을 만든다. 역사의 플랫폼은 보안 안내방송이 잦다. 장비를 펼치기보다 손에 든 상태에서 빠르게 프레이밍하는 스냅 접근이 현실적이다.

포항과 구미의 야간 산업 풍경은 성격이 다르다. 구미는 공장과 택배 물류가 밤에도 살아 움직이며, 포항은 제철소 특유의 고열 빛과 스파크가 도시의 상징처럼 보인다. 포항 제철소 외곽 도로는 관람 공간이 아니므로 멀리서 안전한 조망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효자초등학교 인근 언덕길이나 동빈내항쪽에서 망원으로 땡겨 프레임을 만들면 스케일이 살아난다. 200mm 이상을 쓰면 스파크가 점묘화되고, 100mm 내외면 구조물과 파이프의 패턴이 읽힌다. 해무가 끼는 날은 불빛이 번져 영화 같은 톤이 나오지만, 시야가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이동은 서두르지 않는다.

역사와 골목, 빛이 엮히는 순간

경주의 밤은 번쩍거리는 네온보다 전통 조명이 주인공이다. 동궁과 월지, 대릉원, 첨성대 주변은 따뜻한 색온도의 라이트가 잔디와 흙담을 부드럽게 감싼다. 동궁과 월지는 유명해 사람이 많지만, 호수 동편 버드나무 아래에서 기둥 사이를 뚫고 보는 시선이 비교적 한산하고 안정적이다. 삼각대 사용은 가능하지만 줄을 넘거나 잔디를 밟는 행동은 크게 제지받는다. 반영 사진은 무풍일이 아니어도 충분히 낫다. 이유는 수면 위 얇은 이끼층이 파문을 흡수해 준다. 노출을 너무 길게 끌면 전체가 평평해져 버리니 2초 내외에서 마무리하는 편이 좋다.

황리단길은 밤마다 인파가 넘치지만, 노점등과 카페 외벽 조명이 흘러나오는 골목 끝이 촬영 포인트다. 간판을 정면으로 때리는 사진보다, 기와 처마를 지나간 따뜻한 빛이 길바닥에 만들어내는 하프톤이 더 오래 보인다. 비가 내린 뒤 돌길은 콘트라스트가 높아져 카툰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럴 때는 노출을 2/3 스톱 낮춰 반사광을 눌러 준다. 인물 사진은 길 중앙보다는 벽과 벽 사이 골목 입구에서 좌우 간판의 혼합광을 받게 세우면 눈 밑 그림자가 얹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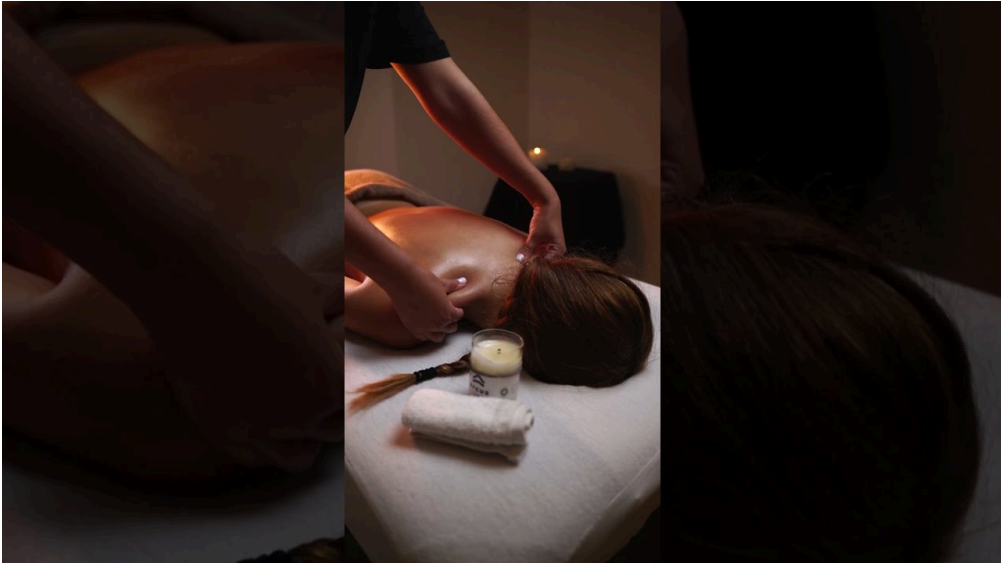
안동 하회마을은 야간 개장일이 제한적이어서, 일몰 이후 빠르게 돌아봐야 한다. 전통 가옥은 실내 조명으로 은근히 빛나고, 마당의 등불이 고른 라인을 만든다. 촬영 시 가장 큰 실수는 밝게 만들려는 욕심이다. 하회마을의 어두움은 짝어야 한다. 어두움이 있어야 등불의 노란빛이 쥐고 있는 시간감을 전달한다. ISO를 무리하게 올리기보다, 삼각대와 릴리즈로 기본기를 지킨다. 인물과 함께 찍고 싶다면 밝은 한복이나 베이지 톤의 옷이 좋다. 검은 계열은 배경 속으로 사라진다.

대구 청라언덕과 3·1운동길, 계산성당 일대는 고풍스러운 벽돌과 나무, 계단이 함께 있다. 밤 조용한 시간에 가면, 교회 스테인드글라스에서 새어 나온 약한 빛이 바닥을 물들인다. 밝기를 과하게 올리면 색이 죽는다. F4, ISO 800, 1/15 전후로 손떨림 보정 렌즈를 믿고 담으면 현장감이 살아난다. 성당 내부 촬영은 미사 시간과 규정이 있으니 안내문을 우선 확인한다.

해안의 밤과 어촌의 리듬

경북 해안은 밤이 길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은 야간 조명이 잘 갖춰져 있고, 스카이워크와 등대, 해상 누각이 프레임의 중심이 된다. 파도가 잔잔한 날, 삼각대를 세워 1초 남짓 노출을 주면 물결은 부드럽게, 누각은 선명하게 남는다. 보름달 전후에는 달빛이 해면을 길게 굽는다. 달 위치를 미리 확인해, 등대와 달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기다리면 의외로 간단한 구도가 완성된다. 바람이 강하면 스카이워크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삼각대는 육지 쪽 데크에서 쓰고, 구조물 위에서는 손에 들고 속도를 올린다.

울진과 울릉을 잇는 여객선이 드나드는 울진 후포항은 수산 작업등이 밤새 켜져 있어 고대적인 녹색빛 장면을 제공한다. 작업하시는 분들 동선이 빠르고, 물기가 많아 미끄럽다. 레인부츠를 준비하고, 장비는 간소화한다. 소금기와 습기는 렌즈에 금방 서리를 만든다. 휴지로 문지르면 자국이 남으니, 송풍기를 가져가 가볍게 털어내는 편이 낫다. 정박한 배의 로프와 부표가 앞쪽 텍스처를 책임진다. 24mm에서 35mm 사이가 적당하다.



영덕 강구항은 붉은 대게 조형물이 유명하다. 관광객이 적은 시간대는 밤 [대구 스파](#) 10시 이후다. 항만 조명이 강해서 그림자가 또렷하게 생긴다. 강한 그림자를 편안하게 만들려면 로우키로 가야 한다. 검은 부분을 과감히 묻고, 밝은 철 구조물만 살리고 끝낸다. 색을 남기고 싶다면 4300 켈빈 이하로 내려 색을 더 깊게 만든다.

도시 예술과 미디어 파사드, 전기가 만든 풍경

대구 북구의 복합 문화 공간들이 야간에 종종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는 움직이는 그림이다.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가기 전 SNS 공지나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한다. 재생 주기가 5분에서 20분까지 다양하다. 영상을 그대로 담으면 화면 갈무리처럼 보이기 쉽다. 건물 모서리나 지나가는 버스의 반사,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겹쳐 리듬을 만든다. 셔터속도를 1/10로 두고 살짝 팬하면, 영상이 추상화되며 색의 띠가 생긴다.

수성못 주변의 하이엔드 카페들은 유리 커튼월과 내부 인테리어 조명이 강렬하다. 창가 가까이에서 찍으면 단순한 카페 사진으로 끝난다. 바깥에서 창과 창 사이 프레임을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을 한 구획만 담으면, 장면이 분절되면서 도시극장 같은 분위기가 된다. 촬영 매너를 지키고, 내부 손님 동의 없는 근접 촬영은 피한다.

시즌별 포인트와 실패 관리

겨울, 앞산 케이블카 하부에서 시작해 도로를 따라 내려오는 자동차 라이트 트레일을 찍기 좋은 날이 있다. 초저녁 퇴근 시간대라 차 흐름이 안정적이고, 공기가 차서 불빛이 또렷하다. 문제는 한 장에 트레일이 끊기는 경우다. 신호주기가 길어지는 구간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치를 약간 이동해 구간을 일직선으로 맞추면 연속성이 살아난다. 또 다른 해법은 다중 노출이다. 현장에서 세 장 정도를 같은 프레이밍으로 찍어 후반에 라이트만 합치면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다.

봄, 경주 보문단지에는 벚꽃 시즌 야간 조명이 켜진다. 핑크빛 과다노출이 흔한 실패다. 꽃을 흰색으로 두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스킨톤처럼 다룬다. 2/3 스톱 언더, 콘트라스트를 낮추고, 채도는 올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장노

줄에서 흔들림이 예쁘지 않게 번진다. 셔터를 빠르게 가져가고 ISO를 아깝지 않게 올린다. 3200, 6400에서도 요즘 센서면 충분히 버틴다.

여름, 신천과 금호강의 벌레와 습도는 적의처럼 느껴진다. 장비 표면 결로는 예고 없이 온다. 카메라와 렌즈에 작은 발열 패드나 렌즈 워머를 돌려주면 새벽 세 시까지도 안정적으로 버틴다. 모기 기피제는 필수, 하지만 손에 바른 직후 카메라를 잡으면 고무 그립이 미끈거릴 수 있다. 촬영 직전에 손을 물티슈로 닦는다.

가을, 포항 영일만과 호미곶 라인에 해무가 잦다. 해무가 들기 시작하면 20분 내외로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 멀리 있는 등대와 산등성이가 사라지기 전에 망원 컷을 먼저 챙긴다. 가까운 장면은 나중에 찍어도 늦지 않다. 안개 속 센서 플래어는 예측하기 어렵다. 강한 조명을 프레임 끝단에 두어 플래어가 화면 밖으로 흘러가게 배치한다.

접근과 동선, 현장 팁

대구 도심 야간 촬영은 대중교통과 도보가 효율적이다.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크고, 장비를 차에 두고 자주 왕복하면 리듬이 끊긴다. 백팩 대신 크로스 슬링에 카메라 한 대, 렌즈 두 개 정도로 압축하면 골목 안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삼각대는 가벼운 카본을 권하지만, 강가나 해안에서 바람이 센 날엔 무게추가 필요하다. 배낭에 물병을 걸어 임시 무게추로 쓰거나, 플라스틱 봉지에 돌을 넣어 걸면 즉석 해결이 된다.

경북의 역사 유적은 관람 시간과 동선 제한이 명확하다. 표지판을 무시하고 들어가 찍는 사진은 결과물이 좋아도 남는 게 없다. 조용히 규정을 지키며 움직이면, 오히려 관리인 분들이 좋은 자리와 시간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경주 대릉원 외곽길에서 그랬다. 의자 하나 놓고 앉아 있던 분이, 달이 첨성대 위로 오르는 시간을 알려줬다. 그날 사진이 지금도 강하다.

안전은 과장해도 부족하지 않다. 해안 방파제는 밤에 깊이를 잃는다. 검은 방파제 사이로 바닷물이 드나들고 발목을 잡는다. 헤드램프가 있어도 그림자와 검은 구멍을 분간하기 어렵다. 바람이 강한 날은 방파제 위로 올라가지 않는 원칙을 지킨다. 공단 인근 도로의 대형차는 소리보다 빨리 온다. 삼각대를 차도 가까이에 세우지 않는다. 셀카모드로 뒤를 보며 프레임하는 위험한 습관을 버린다.

장비와 세팅, 현장에서 통했던 조합

야간에는 센서 성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감도 노이즈 성능이 좋은 바디일수록 색이 버틴다. 다만 과한 고감도로 해결하려는 습관은 돈을 망친다. 스냅은 ISO 1600에서 3200, 풍경 장면은 ISO 100에서 400 사이로 두고 삼각대로 버틴다. 손떨림 보정은 인물이나 스냅에서 유용하지만, 움직임이 있는 물체에는 소용이 없다. 피사체의 움직임을 우선 고려해 셔터속도를 정하고, 그다음 ISO와 조리개를 맞춘다.

렌즈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눈다. 광각 16-24mm는 수성못, 앞산 전망, 해안 누각에 유리하다. 표준 24-70mm는 강가, 골목, 시장에 범용적이다. 망원 70-200mm는 공단, 도시 패턴, 달과 등대 같은 압축된 장면에 좋다. 단렌즈 35mm와 85mm는 인물과 골목 스냅에서 존재감이 크다. 85mm를 F1.8로 열고 인물을 라이트 한 줄 앞에 세울 때, 배경의 원형 보케가 과하게 커지면 프레임이 지저분해진다. 2.2까지 조이면 빛이 점잖아진다.

화이트밸런스는 현장에서 의도를 정하면 후반이 빨라진다. 도시 네온을 강조하고 싶으면 2800에서 3200 켈빈, 따뜻한 전통 조명을 유지하고 싶으면 3800에서 4500 켈빈이 무난하다. 자동에 두고 나중에 맞추겠다는 생각은 장면마다 톤이 달라져 세트를 망친다. 히스토그램으로 하이라이트를 살핀다. LED 간판은 순식간에 클리핑된다. 한 스톱 언더로 찍고, 그림자를 들어올리는 쪽이 안전하다.

필터는 야간에 거의 필요 없다. 단, 강가 조명 반사에서 폴라라이저를 쓰면 반사를 죽여 색을 깊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노을 직후 푸른 시간대에는 하늘과 물 반사를 동시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 신중히. 별이 있는 하늘과 도시 야경을 함께 담을 때는 소프트 그라데이션 ND 대신, 두 장 노출 합성을 택한다.

피사체와 사람, 허락과 관계

시장과 골목에서 사람을 찍을 때는 질문이 앞선다. 손짓으로 허락을 구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천천히 다가간다. 셔터를 누른 뒤 화면을 보여주면 표정이 풀린다. 꾸러미를 들고 있던 아주머니가, 본인의 손이 예쁘게 나왔는지

꼭 확인하곤 한다. 그날은 손을 반 박자 늦춰 다시 찍었다. 이런 시간이 사진을 견고하게 만든다. 무단 촬영이 만든 불편은 다음 사람의 길을 막는다.

사유지 경계는 선명하게 지킨다. 카페 앞 데크, 주택 담장, 공장 출입구는 허락 없이 넘어가지 않는다. 드론은 더욱 민감하다. 야간 비행은 항공법상 추가 제한이 많고, 신고 절차가 번거롭지만 필요하다면 정식 절차를 밟는다. 강변과 유적지, 공항 주변은 비행 금지나 제한 구역이 넓다. 지도를 확인하고, 모르면 날리지 않는다.

사진의 톤을 결정하는 작은 습관

촬영 전에 10분만 걸어보면 프레임이 달라진다. 처음 보이는 화려한 장면을 바로 찍으면, 가장 쉬운 사진이 나온다. 다섯 분만 더 돌면, 빛이 벽을 스치며 만든 흔적이나, 물웅덩이의 얇은 반사, 벤치에 남은 종이컵 같은 작은 요소가 보인다. 이 작은 요소가 큰 장면의 심장을 맡는다. 장노출을 할 때는 첫 장을 시험 삼아 8초로 찍고, 두 번째를 4초로, 세 번째를 15초로 바꿔 같은 장면을 세 가지 버전으로 남긴다. 돌아와 보면, 현장에서는 몰랐던 선택지가 생긴다.

후반 작업은 밤의 공기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샤프와 디헤이즈는 과할수록 싸구려처럼 보인다. 라이트의 하이라이트가 살아있으면 콘트라스트는 그만큼 줄인다. 네온의 색을 과장하면 금세 질린다. 오히려 채도는 약간 빼고, 색조를 미세하게 움직여 톤을 맞추는 편이 오래 간다. 세트로 묶일 사진 다섯 장의 화이트밸런스를 통일하는 것만으로도 이야기가 붙는다.

나만의 루트 예시,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다음 코스는 실제로 여러 번 돌며 손에 익힌 루트다. 걸음이 빠른 편이 아니라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다. 차는 수성못 공영주차장에 두고 시작한다. 해가 막 저서 하늘이 파랗게 남아 있는 시간, 수성스퀘어를 배경으로 물가 장면을 20분 정도 쉐깅한다. 라이트가 완전히 살아난 뒤 호수 둘레길을 북쪽으로 이동해 데크 난간 위 반사 컷을 두세 장 더 만든다. 8시가 넘어갈 즈음 택시로 동성로로 이동한다. 중앙파출소 사거리에서 상점 네온이 가장 강하게 모인다. 비가 없다면 젤 필터를 스마트폰 라이트에 씌워 렌즈 전면에서 살짝 흔들여 색 띠를 만들어 보면 재미가 있다.

9시 반쯤 사람 흐름이 줄기 시작하면 계산성당으로 걸어간다. 돌계단과 스테인드글라스, 가로수 그림자를 각각 한 장만 노린다. 삼각대 없이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 장비를 간소화한다. 10시 반이면 택시로 신천교 남단으로 이동한다. 교각 아래 자전거길에서 위로 올라 다리 구조물을 찍고, 강변 조명 반사와 자동차 트레일을 한 프레임에 엮는다. 마지막으로 앞산 쪽으로 차를 돌리면 자정 전에 전망대에 닿는다. 이 시간 도시가 고요해지고, 주황빛이 수그러든다. 망원으로 특정 빌딩군을 압축해 한두 장 마무리한다. 돌아오는 길, 바람이 맑으면 금호강 다리 위에서 한 장 더. 이 루트는 계절을 조금씩 바꿔도 뼈대가 유지된다.

지도를 그리는 마음, 남기는 태도

대구와 경북의 밤은 뻘하지 않다. 같은 자리에서 계절과 날씨, 시간과 사람의 흐름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도를 그리듯 포인트를 모아두되, 늘 여백을 남긴다. 그 여백에서 우연이 일어난다. 불 꺼진 가게 셔터에 비친 자동차 조명 한 줄이, 강 위로 흘러간 안개가, 공단의 새벽 사이렌이 한 장의 핵심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촬영은 흔적을 남기는 일이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사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태도와 관계도 포함된다. 시선 예절을 남기고, 유적지에선 질서를 남긴다. 강가에선 안전을 남긴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면, 다음에 같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도시가 반겨준다. 대구 경북의 야간 포토존 지도는 결국 스스로 그려가는 지도다. 이 글이 그 출발점이자, 빈칸을 채워갈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밤길에 나서기 전 마지막 확인용으로 써도 좋다.

- 배터리 예비 2개 이상, 메모리 여유 공간 64GB 이상
- 삼각대 및 릴리즈, 렌즈 워머 또는 작은 발열 패드
- 얇은 장갑, 헤드램프, 우비 또는 방수 재킷

- 저속에서 안정적인 신발, 방충 스프레이, 물 한 병
- 현장 규정 확인, 대중교통 막차 시간 체크, 귀가 동선 공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진을 한 번만 훑어본다. 버릴 사진을 고르려 하지 말고, 남길 사진 두 장만 마음에 묻는다. 다음 밤이 기다려진다.

